

보도시점

2026. 10. 6.(화) 12:00
2026. 10. 7.(수) 조간

배포

2026. 10. 2.(금) 17:00

겨울철새 남하 시작...10월 중하순 본격 도래 전망

- 주요 철새도래지 오리류 2.9배 증가,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도 2배 이상 늘어
- 방역당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국내 유입차단에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겨울철새의 국내도래가 시작되고, 해외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유입·확산에 대비하여 선제적 방역대응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전체 물새류는 57,036개체가 관찰돼 일부 겨울철새가 이미 국내에 도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9월과 비교가능한 한강하구, 시화호, 삼교호 3개지역에서는 물새류가 53.1% 증가(15,606 → 23,893)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수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도 189.7% 증가(6,448→18,678)해 약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 등 해외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이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노출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건수 : ('25.1~8월) 1,432건 → ('26.1~8월) 2,957건

이에 따라 양부처는 겨울철새의 본격적인 도래에 앞서 긴밀히 협업하여 겨울철새의 이동상황과 야생조류 AI 검출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예찰과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부터 겨울 철새 초기 기착지와 고병원성 AI 검출 위험성이 높은 22개 지점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찰 지점도 102곳에서 112곳으로 확대하여 분변채취, 폐사체 수색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유입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몽골·일본 등 해외국가와도 협력해 위치추적기를 활용한 철새의 이동 경로와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에서 검출되는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분석하여 국내 유입·확산 양상 및 위험성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선제적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0일부터 「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을 통해 전국 축산농가에 고병원성 AI 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소독 차량과 드론을 동원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장 진입로를 소독하고,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인근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축산차량 출입 통제 구간’ 280곳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향후 야생조류 예찰 과정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검출 지점 기준 반경 10km 이내를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인근 가금농가 대상 검사 및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채은 자연보전국장은 “아직 겨울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이지만 오리과 조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늘고 있어 올겨울은 그 어느때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철새의 국내 이동과 바이러스 검출상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국민께서는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직접 접촉하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즉시 관할 지방정부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10월부터 겨울철새 도래가 본격화 되면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위험도 더욱 커진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철새가 모여드는 강가나 저수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가금농가에서는 농장 주변 경운(논·밭갈이)과 외부 사람·차량의 농장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붙임 1. 2026년 9월 겨울철새 서식현황 10개소 조사결과.
 2.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국민 대응수칙.
 3. 야생동물 농장 내 유입 방지 강화 방안.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고대현 (044-201-7220)
		담당자	서기관	황의정 (044-201-7491)
			사무관	이창선 (044-201-7492)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조류연구팀	책임자	팀 장	김창무 (032-590-7566)
		담당자	연구사	남형규 (032-590-7263)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황성철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이주원 (044-201-2555)

□ 조사 개요

○ 조 사 일 : '26. 9. 25. ~ 9. 27.

○ 조사지역 : 고정조사 지역 10개소*

* ①한강하구, ②시화호, ③삽교호, ④금강하구, ⑤만경강하류, ⑥무안-목포해안, ⑦순천만, ⑧주남저수지(산남, 동판 포함), ⑨낙동강하류, ⑩낙동강하구

□ 조사 결과

○ (종수 및 개체수) 전체 물새류는 총 73종 57,036개체 확인

지 역	전체 물새	오리와 조류
한강하구	5,202	4,459
시화호	18,356	14,180
삽교호	335	39
금강하구	5,298	430
만경강하류	6,205	499
무안-목포 해안	1,552	34
순천만	3,136	642
주남저수지	1,494	855
낙동강하류	2,383	1,310
낙동강하구	13,075	7,828
합계	57,036	30,276

○ (동일지역 개체수 비교) '25년 9월과 '26년 9월의 동일 조사 지역은 한강하구, 시화호, 삽교호 3개소

지 역	전체 물새			오리와 조류		
	'26.9월	'25.9월	전년 대비	'26.9월	'25.9월	전년 대비
한강하구	5,202	3,116	66.9% ↑	4,459	2,006	122.3% ↑
시화호	18,356	11,973	53.3% ↑	14,180	4,226	235.5% ↑
삽교호	335	517	35.2% ↓	39	216	81.9% ↓
합계	23,893	15,606	53.1% ↑	18,678	6,448	189.7% ↑

조류인플루엔자(AI) Q&A

Q1 조류인플루엔자(AI)는 어떤 질병인가요?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닭,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전염되는 호흡기 질병

Q2 바이러스의 생존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분변에 오염된 AI는 4℃에서 35일간 생존, 호수 등 물에서는 22℃에서 4일간, 0℃에서 30일간 생존
※ 가급적은 75℃에서 5분간 가열시 바이러스 사멸

Q3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토양, 물, 분변 등을 신발, 의복, 차량바퀴 등으로 직접 접촉하는 것이 주된 전파 경로

Q4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어떤가요?

AI 감염 조류는 무증상 돌연사, 설사, 구토, 쇠약, 행동이상(머리 기울임, 머리·목 비틀기), 보행이상(기립 및 날개짓 불능) 등을 보임



조류시 신고요령

이럴때 신고하세요

-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 이상행동을 보이는 야생조류 발견 시
- ※ 감염이 의심되는 조류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



여기에 신고하세요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062-949-4360/ 4385)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국민 대응 수칙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국민 행동요령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동 기본원칙



AI 발생으로 인한 '출입통제'지역 출입 금지



저수지, 하천 등 철새가 무리지어 있는 지역
출입 자제 및 AI 발생지역에서 낚시 금지

불가피하게 AI 발생지역 방문시



여벌의 활동복, 신발, 신발커버, 모자 등 준비
활동 후 탈의 및 비닐로 밀봉

※ 일회용 보호복(방역복 등) 착용 권장(일회용 물품 폐기, 나머지 세탁)



이동시에는 분변, 깃털 등을 밟지 않도록 주의

※ 분변에 노출된 경우 즉시 비누와 물로 세정

AI 발생지역을 다녀온 후



철새서식지에서 벗어날 시 신발세척·소독 및
물과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발열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발생 시 관할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



철새서식지 출입 후 가금(닭, 오리 등)농가 방문 금지 및
관련 종사자(농가 종사자, 사료·분뇨 운반자 등) 접촉 금지



야생동물 농장 내 유입 방지 강화 방안

야생동물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합니다!

1 농장 주변
논 경운



농장 주변 논을 경운하여
야생동물의 먹이원과
은신처를 제거합니다.

2 축사와 퇴비장 입구,
지붕 및 벽 그물망 설치



축사와 퇴비장 입구, 지붕 및 벽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의
침입을 차단합니다.

3 사료보관통(사료빈)
주변 사료 제거 및
주변 소독



사료보관통 주변의 사료를 제거하고
주변을 정기적으로 소독하여
야생동물의 유입을 막습니다.

4 야생동물 분변 등
흔적 제거 및 소독



야생동물의 분변, 발자국 등
흔적을 발견 즉시 제거하고
소독합니다.

5 울타리 등 야생동물
출입 방지 시설 점검



울타리의 파손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여 야생동물의
출입을 차단합니다.

6 설치류(쥐)
제거 작업



정기적으로 설치류 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쥐 등의 유입과
서식을 방지합니다.

7 운송벨트 주변 (하부) 청소
및 정기적인 소독



운송벨트 주변 (하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소독합니다.

8 농장 주변
물웅덩이 제거
(또는 그물망 설치)



농장 주변의 물웅덩이를 제거하거나
그물망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의
음용 및 서식을 차단합니다.

9 울타리 주변
예초 작업 실시



울타리 주변의 잡초와 덩불을 제거하여
야생동물의 은신처를 없애고 시야를
확보합니다.

10 철새가 농장 지붕에
앉지 못하도록
조류 퇴치기 운영



조류 퇴치기를 운영하여 철새가
농장 지붕에 앉지 못하도록
합니다.

11 축사에 깔짚으로 사용되는
왕겨 등 하차 직후 소독 및
외부 적치 금지



왕겨 등은 하차 직후 소독하고
외부에 적치하지 않아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습니다.



농장 내 야생동물
유입 차단은
가축전염병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주기적인 관리



청소·소독
생활화



농장 차단방역
수칙 준수



의심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세요!
1588-4060 / 9060